

# 현대중국어 양태와 사역의 비대칭성 연구\*

— 표지이론 기반 분석과 인지언어학적 해석 —

서 지 은\*\*

## <目次>

I. 서론	III. 비대칭 현상의 원인 해석
II. 표지이론과 비대칭성	1.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 발생 배경
1. 무표지와 유표지의 판별 기준	2. 허용의 유표성과 인지적 복잡성
2. 강제와 허용에 대한 유·무표지 판별	3. 허용의 강제화와 무표화 기제의 작용
	IV. 결론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전통 문법에서는 양태와 사역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언어 사용을 살펴보면 양태조동사가 사역의 기능을 겸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중국어에서 ‘要’는 양태조동사와 사역동사 두 가지 용법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양태조동사 ‘춌’<sup>1)</sup>

\* 본 논문은 2025년 6월 14일에 개최된 영남중국어문화회 춘계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세심한 검토와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과 토론자 윤순일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과 ‘准’<sup>2)</sup>은 각각 베이징 방언(北京话)과 간(贛) 방언에 속하는 장시성 안푸 방언(江西安福话)에서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다. 이 밖에 고대중국어에서 ‘得’<sup>3)</sup>과 ‘许’<sup>4)</sup>는 양태조동사 외에 사역동사로도 사용되었다.

刘月华·潘文娛·故韡(2001/2010:709)는 현대중국어의 겹어문을 분석하면서 ‘容许’, ‘禁止’, ‘准许’, ‘允许’ 등 허용이나 금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겹어문에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다. 허용이나 금지는 모두 양태 범주에 속하는 의미이고, 이때의 겹어문은 사역구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동사가 겹어문에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은 양태와 사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태가 사역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 해당 양태는 모두 의무양태(deontic modality)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의무양태는 양태의 한 유형으로, 행위자가 외적 조건에 따라 행위를 허용받거나 의무를 부과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의무양태와 사역 두 범주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서지은(2025b)은 그 상관성의 기저에 공통된 힘 역학(force dynamics) 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sup>5)</sup>

주목할 점은 의무양태와 사역이 상관성을 가지는 것 외에도 각 범주 내부의 하위범주 간에 일관된 비대칭성(asymmetry)이 관찰된다는 사실이다.<sup>6)</sup> 그러나 양태와 사역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관련 비대칭 현상을 포착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무양태와 사역 범주에서 보이는 비대칭성

- 1) 卢小群, 〈北京话中的“容”字句〉, 《中南林业科技大学学报》第1期, 2014, 140쪽.
- 2) 雷冬平, 〈江西安福话的“准”字被动句——兼论使役动词表被动的动因〉, 《萍乡高等专科学校学报》第5期, 2009, 54쪽.
- 3) 冯春田, 《近代汉语语法研究》, 济南: 山东教育出版社, 2000, 641-642쪽. 刘海波, 《近代汉语分析型致使结构及相关句式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23, 123-127, 131쪽.
- 4) 穆涌, 〈汉语道义情态动词“许”的语法化〉, 《当代语言学》第2期, 2019, 238쪽.
- 5) 힘 역학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3.2절 참조.
- 6) 의무양태와 사역의 하위범주 간 비대칭성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과 그 발생 원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양태와 사역의 비대칭 현상

의무양태와 사역은 각각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뉜다. 의무양태에는 ‘의무(obligation)’와 ‘허가(permission)’가 있으며, 사역에는 ‘순수사역(true causative)’과 ‘허용사역(permissive causative)’이 있다. 다음은 각 하위유형의 예이다.<sup>7)</sup>

- (1) a. 这么好的青年, 当然要表扬了。  
 이렇게 훌륭한 청년은 당연히 칭찬해야 한다.  
 b. 休息室里可以吸烟。  
 휴게실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 (2) a. 他本来不想去, 但工作需要, 我让/叫他去。=我派遣他去。  
 그는 가기 싫어했지만 업무상 필요해서 그를 가게 했다. (=그를 보냈다.)  
 b. 他很想去看讲座, 我破例让/叫他去。=我允许他去。  
 그가 강연을 정말 듣고 싶어 해서 내가 특별히 가게 해주었다. (=그가 가도록 허락했다.)

예문(1)은 의무양태, 예문(2)는 사역을 나타낸다. (1a)와 (1b)의 양태조동사 ‘要’와 ‘可以’는 각각 의무와 허가를 나타내며, (2a)와 (2b)의 사역동사 ‘让/叫’는 각각 순수사역과 허용사역을 나타낸다. 이처럼 의무양태와 사역은 각각 양태조동사와 사역동사를 통해 주로 실현된다.

의무양태와 사역의 하위유형은 의미적으로 서로 대응된다. 의무와 순수사역은 외적 힘의 개입을 통해 행위가 유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허가와

7) 예문(1), (2b)는 각각 刘月华·潘文娉·故鞞(2001/2010:176,182), 丁丁(2020:303)에서 인용하였음. 예문(2a)는 丁丁(2020:303)의 예문(‘你需要人帮忙的话, 我让/叫他去=我派遣他去’)을 순수사역 의미가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정한 것임.

허용사역은 외적 제약의 해제를 통해 행위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의무와 순수사역 두 유형을 ‘강제범주’로, 허가과 허용사역 두 유형을 ‘허용범주’로 통칭한다.

〈표 1〉 의무양태와 사역의 두 가지 범주

의무양태	사역		범주 유형
의무	+	순수사역 ⇒	<b>강제범주</b>
허가	+	허용사역 ⇒	<b>허용범주</b>

양태와 사역의 비대칭 현상은 바로 이 두 가지 범주, 즉 강제와 허용 사이에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공시적·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시적 비대칭

양태와 사역은 공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대칭성을 보인다.

첫째, 강제는 허용보다 더 다양한 실현 수단을 가진다는 점에서 양적 비대칭성을 가진다. 양태의 경우, 의무를 나타내는 양태조동사는 ‘要’, ‘得’, ‘必须’, ‘该’, ‘应该’ 등으로 다양하며, 의미 강도에 따라 강의무(strong obligation)와 약의무(weak obligation)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허가를 나타내는 양태조동사는 ‘可以’, ‘能’만이 주로 사용된다.

사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순수사역은 ‘使’, ‘让’, ‘叫’, ‘令’, ‘逼’ 등 다양한 사역동사로 실현되는 반면, 허용사역은 ‘让’, ‘叫’ 두 가지로 국한된다. 게다가 ‘让’, ‘叫’는 허용사역뿐 아니라 순수사역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예문(2)).<sup>8)</sup>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대 표준중국어에서 허용사역만을 나타내는 전용 표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Comrie(1989:171)에 따르면

8) 吕叔湘 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2010, 463쪽. 丁丁, 〈允让使役及其在使役式中的表现〉, 《中国语文》 第3期, 2020, 303쪽.

조지아어(Georgian)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도 하나의 동일한 구문이 허용 사역과 순수사역을 모두 나타낸다. 이는 허용사역에 별도의 표지가 없는 현상이 여러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임을 보여준다.

둘째, 허용은 강제와 달리 긍정형식보다 부정형식으로 더 많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비대칭성을 가진다. 양태의 경우, 긍정형식은 ‘可以’와 ‘能’이 주로 사용되지만<sup>9)</sup>, 부정형식은 ‘不可以’, ‘不能’ 외에도 ‘不可’, ‘不得’, ‘不许’, ‘不容’, ‘不兴’, ‘不准’ 등 다양한 2음절 형식이 존재한다. 이들 형식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긍정형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역에서도 형식적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현대 표준중국어에는 허용사역을 나타내는 전용 표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방언과 고대중국어에서는 전용 표지가 발견된다. 丁丁(2020:313)에 따르면 오(吳) 방언에서는 ‘拨’가 허용사역만을 나타내는 사역표지로 사용된다. 주목할 점은 이 경우 ‘拨’가 부정형식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해당 예이다.

(3) a. 我勿拨伊白相。(‘我不允许他玩儿’)

나는 그를 놀도록 해주지 않는다.

b. \*我拨伊白相。(‘我允许他玩儿’)

나는 그를 놀도록 해준다.

丁丁(2020:303,311)은 또한 ‘使’, ‘令’, ‘遣’, ‘教’ 등의 지시류(指示类) 사역동사가 역사적으로 허용사역을 나타낼 수 있었음을 밝히며, 이 경우 주로 부정형식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方一新(2003)은 ‘听’의 부정형식인 ‘不听’이 고대중국어에서 겹어문을 이루는 ‘불허(不允许)’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听’이 부정형식을 통해서만 허용사역을 나타내는 전용 표지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9) ‘能’은 긍정형식으로 쓰이지만 ‘可以’와 달리 의문문에서만 주로 사용된다는 제약이 있다(예: ‘公园里的花怎么能随便摘呢’). 吕叔湘 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2010, 415쪽.

렇듯 허용사역의 부정형식 편중 현상은 현대 방언과 고대중국어 자료에서 모두 확인된다.

## 2) 통시적 비대칭

강제와 허용은 통시적인 의미 변화 방향에서도 비대칭성을 보인다. 먼저 양태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태조동사 ‘得’(dé)와 ‘可’는 본래 허가를 나타냈으나, 이후 ‘得’<sup>10)</sup>는 의무로, ‘可’<sup>11)</sup>는 제안·요청(建议, 请求)으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sup>12)</sup> 의무가 직접적인 명령을 나타낸다면, 제안·요청은 보다 완곡한 방식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得’는 ‘děi’의 발음으로 여전히 의무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可’는 ‘可以’<sup>13)</sup>의 형식으로 여전히 제안·요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허가에서 의무 또는 제안·요청으로의 의미 변화 현상은 중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영어의 조동사 *must*, 헝가리어의 접미사 *-hat/-het*,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언어인 Tinrin어의 동사 *dru*<sup>14)</sup> 모두 허가에서 의무로의 의미 변화 과정을 겪었으며, 영어의 *get to*는 허가를 나타내는 준(準) 양태조동사이지만, (*have got to*=*gotta*)의 형태로 쓰일 경우 의무를 나타내게 된다. 네덜란드어의 *mogen*<sup>15)</sup> 역시 본래 허가를 나타내는

10) 太田辰夫 著, 蒋绍愚·徐昌华 译, 《中国语历史语法(修订译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7/2003, 186쪽. 范晓蕾, 《汉语情态词的语义地图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20, 188쪽.

11) 李明, 《汉语助动词的历史演变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17, 74, 142쪽.

12) 현대중국어에서 허가 의미의 ‘得’는 부정형식으로만 사용되지만(예: ‘室内不得吸烟’), 고대중국어에서는 긍정형식으로도 사용되었다. 긍정형식 ‘得’의 예는 李明(2017:51)을 참조할 수 있다.

13) 박성하, 〈중국드라마 《三十而已(겨우, 서른)》를 활용한 양태조동사 교육방안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55집, 2022, 146-149쪽.

14) Johan van der Auwera & Vladimir A. Plungian,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1998, 99쪽.

15) Jan Nuyts, Pieter Byloo, & Janneke Diepeveen, “On deontic modality, directivity, and mood: The case of Dutch *mogen* and *moeten*”, *Journal of Pragmatics* 42, 2010, 24-25쪽.

양태조동사이나 실제 사용에서는 권유나 제안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역에서도 허용에서 강제 방향으로의 의미 변화가 관찰된다. 사역동사 ‘让’, ‘尽(儘)’은 본래 허용사역만을 나타냈으나, ‘让’<sup>16)</sup>은 清代 이후 순수 사역까지 나타내게 되며, ‘尽(儘)’<sup>17)</sup>은 현재 서남관화(西南官话)의 쓰촨 시충(四川西充) 방언에서 순수사역까지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용에서 강제 방향으로의 의미 변화는 사역과 양태 두 범주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는 의미 정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의미 정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의미 변화가 단일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양태와 사역은 통시적인 비대칭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의미 정도의 강화는 언어 변화의 보편적 경향이라 할 수 있을까? 赵一农(1999)의 연구에 따르면 강조어(intensifier)는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의미 정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sup>18)</sup> 일례로 현대중국어의 정도부사 ‘很’은 형용사서술어문에서 의미 정도가 약화되어 일종의 문법 표지처럼 사용되고 있다(예: ‘他很聪明’).<sup>19)</sup>

이와 같은 사례는 의미 정도의 강화가 언어 변화의 보편적 경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용에서 강제 방향으로의 변화는 양태와 사역 범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6) 丁丁, 〈允让使役及其在使役式中的表现〉, 《中国语文》 第3期, 2020, 310쪽.

17) 王春玲, 《西充方言语法研究》, 北京: 中华书局, 2011, 183쪽.

18) 강조어의 예로 *great*, *wonderful* 등의 형용사와 *very*, *awfully* 등의 부사, *die* 등의 동사가 있다. 이들 모두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赵一农, 〈语义场内的词义联动现象〉,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4期, 1999, 36-37쪽.

19) 서지은, 〈이동사건 틀에 기반한 ‘走’의 변천사 연구: 방식(manner)동사와 경로(path)동사의 이중용법 발달 과정〉, 《중국어문학지》 제90집, 2025a, 374쪽.

### 3. 연구목적과 방법론

일반언어학에서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을 ‘표지성 (markedness)’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표지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형태론적 범주가 ‘표지(mark)’를 지니는 반면, 다른 범주는 ‘무표지(unmarked)’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유래한 것이다.<sup>20)</sup>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유표지(marked)’와 ‘무표지(unmarke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 내 비대칭성을 기술해 왔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표지이론 (markedness theory)’이다.<sup>21)</sup>

본 연구는 표지이론을 방법론적 틀로 삼아, 양태와 사역 범주에서 관찰되는 공시적·통시적 비대칭성을 유표지와 무표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표지이론과 비대칭성

동일한 문법범주 내 구성원 간의 비대칭성은 곧 유표지와 무표지 두 값의 대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대칭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표지와 무표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표지와 무표지의 판별 기준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강제와 허용 중 어느 것이 유·무표지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20)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59쪽.

21) 沈家煊, 《不对称和标记论》,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9, 22쪽.

### 1. 유표지와 무표지의 판별 기준

유표지와 무표지의 판별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 Croft(1990/2003)와 Givón(1991)이 있다.

Croft는 언어에서의 비대칭성이 개념범주(conceptual category), 즉 문법범주의 보편적 속성임을 강조하며 이를 ‘유형론적 표지성(typological markedness)’이라 명명하였다.<sup>22)</sup> 그는 유형론적 표지성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조적 부호화(structural coding)’와 ‘행동 가능성(behavioral potential)’을 제시하였다.<sup>23)</sup> Givón은 언어의 비대칭 현상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그 판별 기준으로 ‘구조적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 ‘빈도 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sup>24)</sup>

〈표 2〉 Croft와 Givón의 유·무표지 판별 기준 유형

구분	Croft(1990/2003)	Givón(1991)
형태적 복잡성	1) 구조적 부호화	1) 구조적 복잡성
분포적 특성	2) 행동 가능성	2) 빈도 분포
인지적 요인		3) 인지적 복잡성

이 중 Croft의 구조적 부호화는 유표지가 무표지보다 더 많은 형태소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Givón의 구조적 복잡성은 유표지가 무표지보다 형태적으로 더 길거나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은 형태적 복잡성을

22) William Croft,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2003, 88쪽.

23) 같은 책, 91-99쪽.

24) T. Givón, “Markedness in Grammar: Distributional, Communica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Syntactic Structure”, *Studies in Language* 15(2), 1991, 337쪽.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나머지 기준은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구조적 부호화와 복잡성

구조적 부호화와 복잡성은 유표지와 무표지를 구별하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 중 하나이다. 수(number) 범주를 예로 들면, 영어의 단수형은 영형태(zero coding)로 실현되는 반면(예: *boy*), 복수형은 접미사 *-s*를 통해 실현된다(예: *boys*). 복수형이 단수형보다 더 많은 형태 표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수는 무표지로, 복수는 유표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표지는 무표지에 비해 음운은 더 길고, 형태는 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 2) 행동 가능성

Croft의 행동 가능성은 범주 내 각 문법 값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 및 통사적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이는 다시 ‘굴절적 가능성(inflexional potential)’과 ‘분포적 가능성(distributional potential)’으로 구분된다.

굴절적 가능성은 문법 값이 얼마나 다양한 굴절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무표지는 유표지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형태적 변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3인칭 인칭대명사 체계에서 단수는 성별에 따라 *he*, *she*, *it* 세 가지 형태를 가지는 반면, 복수는 성별과 관계없이 *they* 한 형태만을 가진다. 이처럼 단수는 복수보다 더 많은 형태적 변별을 보이므로 단수는 무표지, 복수는 유표지로 분류된다.

Croft(1990/2003:97)는 특히 형태적 실현과 통사적 실현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며,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값은 무표지로, 형태가 아닌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값은 유표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통사적 실현은 우언적 수단(periphrastic elements)을 취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는 곧 그 문법 값이 ‘굴절적 결함(inflexionally defective)’을 가짐을 의미한다.

라틴어의 동사 ‘amāre(사랑하다)’의 수동태 1인칭 단수 직설법 형태를

예로 살펴보면, 현재시제는 형태적 수단을 취하지만 완료시제는 조동사라는 우연적 수단을 취한다.

〈표 3〉 라틴어 동사 ‘amāre’의 수동태 변화(Croft 1990/2003:97)

현재시제 체계	형태	완료시제 체계	형태
present(현재)	amō-r	perfect(현재완료)	amātus sum
imperfect(미완료과거)	amāba-r	pluperfect(대과거)	amātus eram
future(미래)	amābo-r	future perfect(미래완료)	amātus erō

이처럼 라틴어 동사 활용 체계에서 현재시제는 굴절적 결합이 없고, 완료시제는 굴절적 결합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시제는 무표지, 완료시제는 유표지로 분류된다.

분포적 가능성은 문법 값이 얼마나 다양한 통사적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유표지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반면, 무표지는 유표지가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하여 더 넓은 통사적 분포를 가진다. 태(voice) 범주를 예로 들면, 영어에서 대부분의 타동사는 능동태(active voice)와 수동태(passive voice)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동사(예: 비대격동사)나 특정 구문(예: 채귀목적어 구문)은 능동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수동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sup>25)</sup>

- (4) a. That cloud resembles a fish.  
저 구름은 물고기를 닮았다.
- b. \*A fish is resembled by that cloud.
- (5) a. Fred killed himself.  
프레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b. \*Himself was killed by Fred.

25) 예문은 Croft(1990/2003:98)에서 인용하였음.

이러한 차이는 능동태가 수동태보다 더 많은 통사적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능동태는 무표지, 수동태는 유표지로 분류된다.

### 3) 빈도 분포와 인지적 복잡성

Givón이 제시한 빈도 분포와 인지적 복잡성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도 분포는 사용 빈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유표지는 무표지보다 더 낮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인지적 복잡성은 유표지가 무표지보다 더 많은 주의력과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Givón(1991:351-352)의 연구에 따르면 피동문(passive clauses)은 능동문(active clauses)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빈도 분포를 보이며, 인지적 처리가 더 복잡하고, 아동의 습득 시기 역시 더 늦다. 이는 표지성이 단순한 형식적 차원을 넘어 실제 언어 사용과 인지적 부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강제와 허용에 대한 유·무표지 판별

본고는 Croft와 Givón이 제시한 기준 중 행동 가능성(굴절적 가능성과 분포적 가능성)과 빈도 분포를 중심으로 강제와 허용 두 범주의 유·무표지를 판별하고자 한다.<sup>26)</sup> 분석 대상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어와 영어의 사례도 함께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1) 굴절적 가능성

굴절적 가능성은 하나의 문법 값이 얼마나 다양한 굴절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표지와 무표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중국어

26) Croft와 Givón이 제시한 기준 중 구조적 부호화와 복잡성은 고립어(isolate language)인 중국어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렵다. 인지적 복잡성은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해석하는 데 더 적합하므로 3장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와 영어, 한국어 모두 굴절 체계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므로, 굴절형의 수 자체보다는 굴절적 결합의 여부가 보다 유효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굴절적 결합의 유무를 기준으로 강제와 허용의 유·무표지를 판별해보겠다.

양태의 경우, 의무는 세계 여러 언어에서 접미사, 소유 인칭 접사, 첨사 등 다양한 형태 표지를 통해 실현되는 사례가 관찰된다.<sup>27)</sup> 반면 허가는 대부분 조동사로 실현되며, 형태 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sup>28)</sup> 사역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보조용언 ‘-게 하다’ 외에도 ‘-이-’, ‘-히-’, ‘-리-’, ‘-기-’ 등 다양한 사동 접사를 통해 사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영어에서도 사역동사 ‘make’, ‘get’, ‘have’ 등 외에 ‘-en’, ‘-ify’, ‘-ize’ 등의 사동 접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순수사역을 나타내며, 허용사역을 나타내는 별도의 접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는 다양한 형태적 수단을 통해 실현되는 반면, 허용은 주로 어휘적 수단에 의존한다. 이는 허용이 강제와 달리 굴절적 결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는 무표지로, 허용은 유표지로 분류된다.

## 2) 분포적 가능성

분포적 가능성은 하나의 문법 값이 얼마나 다양한 통사적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표지와 무표지를 판별한다.

먼저 양태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무와 허가는 모두 외적 조건에 따른 행위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둘은 적용되는 외적 조건의 범위가 다르다. 의무는 사회적 조건은 물론 물리적 조건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데 반해, 허가는 사회적 조건에만 사용 가능하다.

27) Joan Bybee, Revere Perkins, & William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83-188쪽.

28) 같은 책, 190-192쪽.

- (6) a. 你是学生, **必须**按时上课。 [사회적 조건]  
 너는 학생이니 제시간에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 b. 人每天**要**喝水。 [물리적 조건]  
 사람은 매일 물을 마셔야 한다.
- (7) a. 老师说你**可以**走了。 [사회적 조건]  
 선생님이 너는 가도 된다고 했다.
- b. 这个房间**可以**坐十个人。 [물리적 조건]  
 이 방은 열 명이 앉을 수 있다.

예문(6)은 의무의 예로, (6a)의 ‘必须’는 사회적 조건(규범)에 따른 의무를, (6b)의 ‘要’는 물리적 조건(생리적 필요)에 따른 의무를 나타낸다. 예문(7a)의 ‘可以’는 교사라는 권위에 의해 부여된 허가로, 사회적 조건에 따른 허가를 나타낸다. 예문(6), (7a) 모두 의무양태에 해당한다. 반면 (7b)의 ‘可以’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따른 가능, 즉 물리적 수용 능력을 나타낸다. 이때의 ‘可以’는 의무양태가 아닌 동적양태(dynamic modality)에 해당한다.<sup>29)</sup> 이는 허가가 의무와 달리 사회적 조건에서만 실현되며, 물리적 조건에서는 의무양태로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역에서도 분포적 비대칭이 나타난다. 중국어에서 순수사역은 ‘使’, ‘叫’, ‘令’, ‘逼’ 등의 사역동사뿐 아니라 능격동사(ergative verb)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능격동사란 자동사의 한 부류인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up>30)</sup>가 타동사로도 쓰이는 자타양용(两用) 동사를 가리킨다. 능격동사

29) 동적양태의 가능(possibility)과 의무양태의 허가(permission)는 부정되는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가능의 부정은 불가능에 해당하며, 이는 가능보어 부정형식인 ‘V不C’로 실현된다. 반면 허가의 부정은 불허, 즉 금지에 해당하며, 이는 ‘不许’ 또는 ‘不行’로 실현된다. 물리적 가능(즉 동적양태)을 나타내는 예문인 ‘这个房间**可以**坐十个人(이 방은 열 명이 앉을 수 있다)’의 부정은 ‘这个房间**坐不下**十个人(이 방은 열 명이 앉을 수 없다)’이 된다.

30) 자동사는 크게 일반자동사(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로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자동사(비능격동사)는 행위자역의 외재논항을 가지며, 의도적, 통제성 행위를 나타낸다(예: ‘他笑了’의 ‘笑’). 반면 비대격동사는 대상역의 내재논항을 가지며, 상태 또는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예: ‘出汗了’의 ‘出’). 서지은, <상고중

가 타동사 구조로 사용될 때 이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sup>31)</sup>

- (8) a. 火灭了 — **他灭了火**  
불이 꺼졌다 — 그가 불을 껐다  
b. 船沉了 — **水手们沉了船**  
배가 가라앉았다 — 뱃사람들이 배를 가라앉혔다  
c. 冰融化了 — **高温融化了冰**  
얼음이 녹았다 — 고온이 얼음을 녹게 하였다

반면 허용사역은 사역동사 ‘让’, ‘叫’를 통해서만 실현되며, 통사적 제약이 크다. 순수사역과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허용사역에서는 문장의 주어(즉 사역주)가 비행위자인 경우 비문이 된다는 점이다.

- (9) a. **暴雨**使训练中断了。 [순수사역]  
폭우로 훈련이 중단되었다.  
b. \***暴雨**让队员们休息了。 [허용사역]

예문(9a)처럼 순수사역은 비행위자가 주어 자리에 와도 문법적으로 허용되지만, (9b)에서 보듯이 허용사역은 비문이 된다.

본고의 중국드라마 대사(〈三十而已〉, 1-10화) 분석 결과, 이러한 제약은 한층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선 ‘让’, ‘叫’ 중 오직 ‘让’만이 허용사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이 역시 사역주가 2인칭이고 피사역주가 1인칭인 구문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한다.<sup>32)</sup>

국어시기 방향동사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찰—‘出’, ‘起’, ‘來’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98권, 2024, 5-6, 10쪽.

31) 예문은 杨素英(1999:37)에서 인용하였음.

32) 본고에서 추출한 허용사역 ‘让’의 예문 12개 중 9개가 해당 통사구조에 출현한다. 중국드라마 대사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 (10) a. 一让我看。一好。(3화)  
 -내가 봐볼게. -알았어.  
 b 你们能不能让我清静一会儿?(8화)  
 혼자 좀 있게 해 줄 수 없나요?

영어에서도 허용사역은 순수사역보다 통사적 제약이 크다. Talmy(2000: 424-425)에 따르면 순수사역을 나타내는 *make*는 주어 자리에 반작용체(즉 사역주)가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관여하는 사건 전체가 올 수 있는 반면(예문(11a)), 허용사역을 나타내는 *let*은 후자의 구조만 허용된다(예문(11b)).

- (11) a. i. The piston's pressing against it made the oil flow from the tank.  
 피스톤이 그것을 누른 것이 탱크에서 기름이 흐르게 만들었다.  
 ii. The piston made the oil flow from the tank.  
 피스톤이 탱크에서 기름이 흐르게 만들었다.  
 b. i. The plug's coming loose let the oil flow from the tank.  
 플러그가 느슨해진 것이 탱크에서 기름이 흐르게 해주었다.  
 ii. \*The plug let the oil flow from the tank.

이상에서 보듯이 강제는 다양한 통사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허용은 분포 범위가 좁고 통사적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차이는 강제가 무표지, 허용이 유표지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 3) 빈도 분포

본고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강제와 허용 간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어·영어·한국어 드라마 대본을 말뭉치로 설정하고, 양태와 사역 두 범주에서의 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표 4〉 언어별 분석 드라마 기본 정보

언어유형 드라마 정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제목	<三十而已>	<Blockbuster>	<미생>
방영 년도	2020	2022	2014
분석 범위	1-10화	1-10화	1-10화
글자 수	199,542자	187,192자	229,547자

위의 세 드라마 모두 현대 직장인의 일상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 간의 복합적인 인간관계가 전개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는 강제와 허용 표현이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는 언어적 환경이 조성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언어별 분석 대상을 양태와 사역 두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태의 경우, 중국어는 강제(즉 의무)로 양태조동사 ‘要’, ‘得’, ‘必须’, ‘应该’, ‘该를, 허용(즉 허가)으로 ‘可以’, ‘能’을 대상으로 삼았다. 영어는 강제로 *should, must, have to, need to*를, 허용으로 *may, can*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어는 강제로 ‘-야 되다’의 활용형(‘-야 돼’, ‘-야 된’, ‘-야 될’ 등)을, 허용으로 ‘-도 되다’의 활용형(‘-도 돼’, ‘-도 된’, ‘-도 될’ 등)을 분석하였다.

사역의 경우, 중국어는 강제(즉 순수사역)로 동사 ‘让<sub>1</sub>’, ‘叫’, ‘使’를, 허용(즉 허용사역)으로 ‘让<sub>2</sub>’을 대상으로 삼았다.<sup>33)</sup> 영어는 강제로 동사 *make, have, get*을, 허용으로 *let*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어는 ‘-게’, ‘-도록’ 뒤에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 오는 경우를 강제로, ‘해주다’의 활용형이 오는 경우를 허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3) ‘叫’는 선행연구(吕叔湘主编 2020:436, 丁丁 2020:303)에서 허용사역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로 분류되지만, 본고의 분석 대상인 드라마 대사에서는 순수사역의 용법으로만 출현한다. 이에 ‘叫’는 허용사역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의 분석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중·영·한 양태 및 사역 표현 목록

		중국어	영어	한국어
양태	강제	‘要’, ‘得’, ‘必须’, ‘应该’, ‘该’	<i>should, must, have to, need to</i>	‘-야 되다’의 활용형
	허용	‘可以’, ‘能’	<i>may, can</i>	‘-도 되다’의 활용형
사역	강제	‘叫’, ‘让’, ‘使’	<i>make, have, get</i>	‘-게도록 하다’ 활용형
	허용	‘让’	<i>let</i>	‘-게도록 해주다’ 활용형

각 언어 자료에서의 출현 빈도를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태의 경우, 중국어는 강제와 허용이 각각 255회와 95회(개당 평균 빈도 51, 47.5) 출현하였고, 영어는 강제와 허용이 각각 137회와 43회(개당 평균 빈도 34.3, 21.5), 한국어는 각각 96회와 35회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사역의 경우, 중국어는 강제와 허용이 각각 74회(개당 평균 빈도 24.7)와 12회, 영어는 각각 45회(개당 평균 빈도 15)와 42회<sup>34)</sup>, 한국어는 각각 13회와 1회 출현하였다. 언어별 강제와 허용의 출현 빈도와 그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중·영·한 양태 및 사역 표현의 출현빈도와 비율

		중국어		영어		한국어	
		강제	허용	강제	허용	강제	허용
양태	빈도(회)	255	95	137	43	96	35
	비율(%)	72.9	27.1	76.1	23.9	73.3	26.7
사역	빈도(회)	74	12	45	42	13	1
	비율(%)	86.0	14.0	51.7	48.3	92.9	7.1

34) 영어 사역 범주의 경우, 전체 빈도 기준으로는 강제가 허용보다 높지만, 개별 항목당 평균 빈도로 환산하면 오히려 강제가 허용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영어는 사역 범주에서 강제와 허용 간의 분포적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세 언어 모두에서 강제가 허용보다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양태는 사역에 비해 전반적인 사용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강제와 허용 간의 빈도 격차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도식 1>은 출현빈도 분포를 시각화한 것으로, 각 언어의 양태와 사역 범주별 강제 및 허용 간의 빈도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도식 1> 중·영·한 강제와 허용 출현 빈도

위의 도식에서 보듯이 언어 간에 상대적인 비율 차이는 존재하지만, 세 언어 모두에서 강제가 허용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빈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제는 무표지로, 허용은 유표지로 분류된다.

### Ⅲ. 비대칭 현상의 원인 해석

2장에서 강제와 허용이 각각 무표지와 유표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표지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강제와 허용 간에 나타나

는 비대칭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 발생 배경

인지심리학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범주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자동적으로 범주화를 한다. 생전 처음 본 대상도 기존의 지식에 기초해 같은 종류로 묶고, 그 종류에 이름을 붙여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sup>35)</sup>

기존의 지식에 기초해 대상을 같은 종류로 묶는다는 것은, 전형적 구성원을 중심으로 비전형적 구성원을 추론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론화한 것이 원형범주론(prototype theory)이다.<sup>36)</sup>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범주화를 할 때 명확한 필요충분조건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내재된 전형적인 예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주화의 결과, 범주 내부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가 형성된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범주는 이러한 위계 구조를 가지며, 언어의 문법범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원형범주론은 표지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하나의 문법범주 내에서 전형적인 구성원은 무표지로, 비전형적인 구성원은 유표지로 이어진다. 이로써 유표지와 무표지의 대립이 형성된다. 둘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와 통사, 분포상의 차이로 나타난다. 강제와 허용 간의 비대칭성은 바로 이러한 범주 내 전형성과 비전형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서 강제는 전형적 범주로, 허용은 비전형적 범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1장에서는 강제가 허용보다 더 다양한 실현 수단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1.2절 참조). 沈家煊(1999:37)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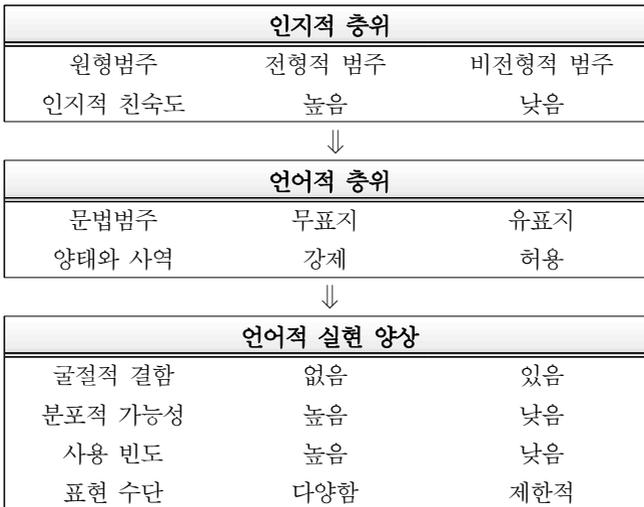
35)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파주: 북멘토, 2022, 156-157쪽.

36)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5-8쪽.

숙한 대상일수록 그 내부 차이를 더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인은 동양인을 볼 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하기 어려워하지만, 동양인은 이 차이를 민감하게 인지한다. 따라서 익숙한 대상일수록 내부 구성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낯선 대상일수록 구성 요소가 단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 원리는 언어의 문법범주에도 적용된다. 경험적으로 자주 접하는 범주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되어 무표지로 실현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범주는 낯선 것으로 인식되어 유표지로 실현된다. 그 결과 무표지는 유표지보다 더 다양한 표현 수단을 지니게 된다. 강제가 허용보다 더 다양한 실현 수단을 가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인지적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성을 인지적 층위에서 언어적 실현까지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식 2〉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 발생 경로

이처럼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성은 인지적 층위가 언어적 실현으로 투영된 결과이다. 인간의 범주에 대한 인지 원리가 문법범주의 표지성으로 구현되고, 이것이 다시 구체적인 언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2. 허용의 유표성과 인지적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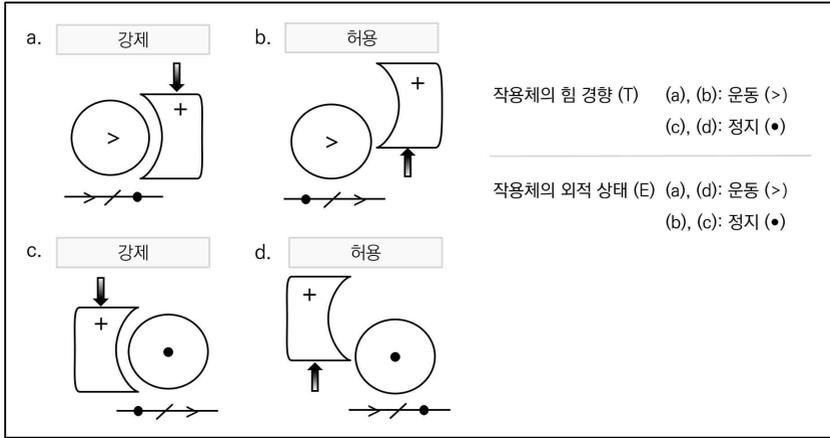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가 무표지이고 허용이 유표지로 실현되는 양상은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한국어에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허용의 유표성이 개별 언어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인지적 기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Lakoff(1987:68)는 인간의 개념 체계가 ‘이상화된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s, ICMs)’에 따라 조직된다고 보았다. ICM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이해할 때, 그 핵심 요소와 상호 관계를 이상화된 형태로 구조화하는 일종의 인지적 틀을 말한다. 인지언어학자 Talmy(1988, 2000)가 제시한 힘 역학(force dynamics) 역시 ICM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힘 역학은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화한 것으로, 작용체와 반작용체 간의 힘 대립을 전제로 한다. 의무양태와 사역 모두 임무나 허가를 내리는 부과자(imposer)와 이를 이행하는 수행자(imposee) 간의 대립 구도를 가지며, 부과자와 수행자는 각각 작용체와 반작용체에 대응한다.<sup>37)</sup> 따라서 의무양태와 사역 역시 힘 역학 구조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아래는 Talmy(2000:418)가 제시한 힘 역학 패턴에 근거하여 의무양태와 사역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sup>38)</sup>

37) 서지은, <사역과 양태의 상관성과 ‘要’의 문법화 - 힘 역학 이론에 기반한 공시와 통시의 통합적 접근>, 《중어중문학》 제100집, 2025b, 341, 355쪽.

38) Leonard Talmy,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Concept Structuring Systems*, Vol. 1, Cambridge, MA: MIT Press, 2000, 418쪽. 도식의 ‘강제’, ‘허용’ 표기와 ‘작용체의 외적 상태’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도식 3〉 의무양태와 사역의 힘 역학 구조\*

\* 도식 설명: ‘작용체’는 원형(○)으로, ‘반작용체’는 왼쪽 면이 오목한 도형(□)으로 표시된다. ‘작용체의 힘 경향(T: Tendency)’과 ‘작용체의 외적 상태(E: Event)’가 ‘운동’인 경우 화살촉(>)으로, ‘정지’인 경우 점(●)으로 표시된다. 작용체의 외적 상태란 반작용체의 힘 경향 실현 이전 단계에서 작용체가 처한 외적 상태를 말한다. 작용체와 반작용체 두 개체 중 자신의 힘 경향을 실현할 수 있는 개체는 ‘+’로 표시된다.

이 도식에서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반작용체가 작용체보다 힘이 더 큰 경우로, 반작용체의 개입 또는 이탈을 통해 작용체의 상태가 변화함을 나타낸다. (a), (c)유형은 반작용체가 개입함으로써 운동 또는 정지 상태에 있던 작용체가 반대 상태로 전환되는 유형이고, (b), (d)유형은 반작용체가 물러나면서 작용체 본래의 힘 경향이 실현되는 유형이다. (a), (c)유형은 강제범주에 해당하고, (b), (d)유형은 허용범주에 해당한다.<sup>39)</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허용이 반작용체의 이탈을 통해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작용체의 이탈은 외적 제약의 해제를 의미한다. Comrie(1989:171)는 순수사역과 허용사역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며, 순수사역은 선행사건(또는 그 사건의 행위자)이 행위의 발생을 일으키는 힘

39) 본문에서 제시한 힘 역학 구조의 기본 개념과 해석은 필자의 이전 연구(서지은 2025b:335-341)에 기반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예시는 해당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the power to bring about)을 가진 반면, 허용사역은 행위의 발생을 저지하는 힘(the power to prevent)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허용사역에 대한 그의 분석 역시 허용에는 ‘제약’이란 개념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허용은 제약이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 된다. <도식 3>에서 보면, (b), (d)유형은 각각 (a), (c)유형이 선행 조건으로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하다. 반면 강제는 제약과 같은 별도의 의미적 조건 없이도 성립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Givón(1991:337)은 유표지가 무표지에 비해 더 복잡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가진다고 하며 이를 ‘인지적 복잡성’이라 명명하였다(2.1절 참조). 허용은 제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강제에 비해 인지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허용이 유표성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허용은 강제보다 인지적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유표지로 실현되는 것이다.

강제와 허용의 구조적 차이는 작용체의 힘 경향(T)과 외적 상태(E) 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강제는 작용체의 힘 경향과 외적 상태가 일치하는 구조이며, 허용은 이 둘이 대립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 허용은 작용체의 내부 힘과 외부 힘이 대립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표 7〉 강제와 허용의 T-E 관계

강제	허용
T=E	T≠E

위와 같은 차이는 허용이 제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렇듯 허용의 유표성은 작용체와 외적 상태 간의 대립 구조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 3. 허용의 강제화와 무표화 기제의 작용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용과 강제는 공시와 통시 두 가지 측면에

서 모두 비대칭성을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강제에 비해 부정형식이 더 많으며, 통시적으로는 허용에서 강제로의 의미 정도 강화는 나타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1.2절 참조).

허용이 부정형식이 되면 금지 의미가 된다. 금지는 ‘명제(p)가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예: ‘不可以p’), 이는 논리적으로 ‘명제(p)가 실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예: ‘必须不p’). 즉, 허용의 부정은 부정 명제에 대한 강제와 같다(예: ‘不可以p’ ≡ ‘必须不p’<sup>40)</sup>). 따라서 허용의 의미 강화 현상뿐 아니라 허용의 부정형식 사용 모두 허용의 ‘강제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용의 강제화는 왜 발생하는가?

刘丹青(2008)은 인류 언어가 유표지 상태에 대응하여 무표지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처럼 유표지 상태가 무표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무표화(无标化)’라고 명명하고, 이 무표화란 기제를 통해 재분석(重新分析, reanalysis)이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였다.<sup>41)</sup> 그에 따르면 재분석은 기능 확장으로 인해 나타난 유표적 상태에 대한 반작용이며, 궁극적으로는 언어가 무표지 상태를 지향하는 속성에 기인한다.<sup>42)</sup>

허용의 강제화 현상 역시 무표화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허용은 유표지이고 강제는 무표지이다. 따라서 허용이 강제로 변화하는 것은 곧 무표

40) 예시로 든 ‘必须不p’는 ‘不可以p’보다 실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강제+不’와 ‘+허용’ 두 형식의 의미가 논리상 동등하므로, 허용의 부정이 강제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41) 刘丹青, 〈重新分析的无标化解释〉, 《世界汉语教学》 第1期, 2008, 5-17쪽.

42) 여기서 재분석이란 문법화를 가리킨다. 문법화 이전의 상태는 유표지 상태이고, 문법화된 이후의 상태는 무표지 상태로 간주된다. 刘丹青(2008:11)은 무표화의 유형으로 ‘구조의 단순화(结构简化)’와 ‘의미와 형식 간의 일치(自然匹配)’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동사+VP’ 구조가 ‘양태조동사+VP’ 구조로 문법화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동사가 목적어로 기능하는 구조는 술어로 기능하는 구조에 비해 더 복잡하고, 둘째, 동사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조동사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의미와 형식 간의 대응이 덜 자연스럽다. 첫 번째 요인에 의한 무표화는 구조의 단순화에 해당하고, 두 번째 요인에 의한 무표화는 의미와 형식 간의 일치에 해당한다(刘丹青 2008:12,16).

화 과정에 해당한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된다. 하나는 부정형식의 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강화이다.

〈도식 3〉에서 (b), (d)유형은 허용에, (a), (c)유형은 강제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이 중 (b)를 기준으로 보면, 부정형식의 사용은 (b)가 (a)유형으로, 의미 강화는 (b)가 (c)유형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다.<sup>43)</sup>

유표지	무표화 →	무표지
허용	부정형식 사용	강제
허용	의미 강화	강제

〈도식 4〉 허용의 무표화 과정

힘 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제약이라는 별도의 전제 없이 성립하는 구조로의 회귀이자, 작용체의 힘 경향과 외적 상태가 일치하는 구조로의 전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어 변화가 인지적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의 양태와 사역 범주에서 관찰되는 비대칭성을 표지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그 발생 원인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양태와 사역 범주 내부에는 강제와 허용 간의 비대칭성이 존

43) 만약 (d)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정형식의 사용은 (d)가 (c)유형으로, 의미 강화는 (d)가 (a)유형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다. 허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멈춰도 된다’보다는 ‘어떤 행위를 수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본문에서는 ‘어떤 행위를 수행해도 된다’를 나타내는 힘 역학 구조인 (b)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재한다. 공식적 측면에서 강제는 허용보다 더 다양한 실현 수단을 가지며, 허용은 주로 부정형식으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시적 측면에서는 허용에서 강제 방향으로의 의미 변화만 나타나고 그 반대 방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강제와 허용의 유·무표지를 분석한 결과, 강제는 무표지로, 허용은 유표지로 분류된다. 허용은 강제와 달리 굴절적 결합을 지니고, 통사적 제약도 강제보다 크며, 사용 빈도도 현저히 낮다. 나아가 이러한 유·무표지의 대립은 중국어뿐 아니라 한국어, 영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언어적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강제와 허용의 비대칭성은 원형범주론에 따른 전형성과 비전형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강제는 전형적 범주로서 무표지가 되고, 허용은 비전형적 범주로서 유표지가 된다. 또한 허용은 외적 제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구조로서 강제보다 더 복잡한 인지적 처리 과정을 수반한다.

넷째, 허용의 강제화 현상은 언어가 유표지 상태에서 무표지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향, 즉 무표화 기제의 작용에 따른 결과다. 이는 인지적 복잡성을 최소화하려는 언어 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는 부정형식의 사용과 의미의 강화 두 가지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상의 논의가 표지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언어 전반에 나타나는 비대칭 현상의 인지언어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파주: 북멘토, 2022.  
 박성하, 〈중국드라마 《三十而已(겨우, 서른)》를 활용한 양태조동사 교육 방안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55집, 2022.  
 서지은, 〈상고중국어시기 방향동사의 비대격성에 대한 고찰—‘出’, ‘起’〉,

- ‘來’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98권, 2024.
- 서지은, 〈이동사건 틀에 기반한 ‘走’의 변천사 연구: 방식(manner)동사와 경로(path)동사의 이중용법 발달 과정〉, 《중국어문학지》 제90집, 2025a.
- 서지은, 〈사역과 양태의 상관성과 ‘要’의 문법화 - 힘 역학 이론에 기반한 공시와 통시의 통합적 접근〉, 《중어중문학》 제100집, 2025b.
- 丁丁, 〈允让使役及其在使役式中的表现〉, 《中国语文》 第3期, 2020.
- 范晓蕾, 《汉语情态词的语义地图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2020.
- 方一新, 〈“不听”之“不允许”义的产生年代及成因〉, 《中国语文》 第6期, 2003.
- 冯春田, 《近代汉语语法研究》, 济南: 山东教育出版社, 2000.
- 雷冬平, 〈江西安福话的“准”字被动句——兼论使役动词表被动的动因〉, 《萍乡高等专科学校学报》 第5期, 2009.
- 卢小群, 〈北京话中的“容”字句〉, 《中南林业科技大学学报》 第1期, 2014.
- 吕叔湘 主编,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2010.
- 刘丹青, 〈重新分析的无标化解释〉, 《世界汉语教学》 第1期, 2008.
- 刘海波, 《近代汉语分析型致使结构及相关句式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23.
- 刘月华·潘文娉·故鞅,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2001/2010.
- 沈家煊, 《不对称和标记论》,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9.
- 太田辰夫 著, 蒋绍愚·徐昌华 译, 《中国语历史语法(修订译本)》,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1987/2003.
- 王春玲, 《西充方言语法研究》, 北京: 中华书局, 2011.
- 杨素英, 〈从非宾格动词现象看语义与句法结构之间的关系〉, 《当代语言学》 第1期, 1999.
- 赵一农, 〈语义场内的词义联动现象〉,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4期, 1999.
-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Comrie, Bernard,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Croft, William,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2003.
- Givón, Talmy, “Markedness in Grammar: Distributional, Communica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Syntactic Structure”, *Studies in Language* 15(2), 1991.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Nuyts, Jan, Pieter Byloo, and Janneke Diepeveen, “On deontic modality, directivity, and mood: The case of Dutch *mogen* and *moeten*”, *Journal of Pragmatics* 42, 2010.
- Talmy, Leonard,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 1988.
-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Concept Structuring Systems*, Vol. 1,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van der Auwera, Johan, and Vladimir A. Plungian,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1), 1998.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ymmetry observed in the modality and causation categories of Modern Chinese within the framework of

markedness theory, and to account for its underlying causes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Both modality and causation have two subcategories: coercion and permission, between which consistent asymmetries appear in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dimensions. Through prototype theory and force dynamics analysi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ercion represents a prototypical category, whereas permission constitutes a non-prototypical category that presupposes the removal of external constraints and exhibits cognitive complexity.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phenomenon of permission becoming coercive results from a demarking mechanism, which is realized through two distinct pathways: the use of negative constructions and semantic strengthening.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integrated analysis of asymmetry in modality and causation categories and elucidates their cognitive principles through a convergent approach combining markedness theory and cognitive linguistics.

Key Words : 양태(Modality), 사역(Causation), 강제(Coercion), 허용(Per-  
mission), 표지이론(Markedness Theory), 원형범주론(Prototype  
Theory), 힘 역학(Force Dynamics), 무표화(Demarking), 인지  
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